

홍콩 국제 건축교육 토론회

Visiting Hong Ko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al Education

2001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홍콩의 킹스로드 979번지에 있는 타이쿠 플레이스 도르보셋 하우스내의 버터필드 회의장(Butterfield's 2F/l., Dorset House, Tai Koo Place, 979 King's Road)에서 홍콩 건축사 협회(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아카시아(ARCASIA) 그리고 영연방 건축사 협회(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가 주최한 21세기를 위한 건축 교육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아카시아 회원국 회원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우간다에서 약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토론회의 제목은 "21세기를 위한 건축교육의 새로운 틀 만들기"(Remaking the Framework of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로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건축사를 길러내는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재고하자는 취지였다.

5일과 6일 양일동안 오전에는 각국에서 온 기조연설자들이 건축 교육 전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고, 오후에는 다양한 교육의 실례를 중심으로 논문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홍콩의 건축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작품과 건축과 시설에 대한 참관이 있었다.

Day 1 Thursday, 5 July 2001

오전중에 발표된 기조연설과 논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조 연설자 : Alan Plattus 교수, Yale University, 미국
기조연설제목 : Civic and Tectonic Humanism as a Framework for Architectural Education

• 1955년 역사가인 Hans Baron이 능동적인 정치적 참여와 전통적 학문의 부활이 1400년경 플로렌스에서 인본주의 속에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공공적 인본주의(civic humanism)라 말하였다. 이는 철학적 사고와 실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현대의 건축교육에서 나타나는 이론과 실무교육의 괴리현상을 피하고 양자를 통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축조적 인본주의(tectonic humanism)는 건축의 요소, 각각 요소의 결합, 재료등이 디자인과 건설기술의 관계에 의해 구축되어지고 철학, 수사학, 문학, 역사학과 같은 자유예술 혹은 전통적인 인본주의에 기초를 둔 연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론과 실재가 유리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기조 연설자 : Susan Savage 교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주
기조연설제목 : The parable of a baby and her bathwater

• 건축은 실무를 전제로 하고,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전문 교육이다, 이것을 "아기"에 비유한다면 "목욕물"이란 아기가 놀 수 있는 시대를 말하며, 이 시대는 항상 변화하고 실무를 기초로

하는 수준 높은 전문교육은 건축교육의 미래에 열쇠를 제공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건축가를 길러내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3. 기조 연설자 : Alexander Tzonis 교수, University of Technology of Delft, 네덜란드
기조연설제목 : Architecture by Dialogue for Dialogue

• 대화와 협동을 통한 작업의 새로운 개념이 건축교육, 빌딩디자인 그리고 건축사 전문교육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

1. 우리는 대화를 통한 디자인 방법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복합문화성, 복합적인 정체성, 그리고 불변의 인식력에 대한 모습을 찾아야 한다. 2. 건축교육은 상호교류를 통한 창조적인 과정으로서 건축실무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필요를 갖기 위해 그리고 협동 작업하는 여러 사람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을 위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현재의 건축교육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요구를 모르고 있고 대화를 통한 작업이 가져다주는 소중한 기회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다.

4. 기조 연설자 : Zhou Chang, 중국건축사협회회장, 중국
기조연설제목 : The Professional Architectural Degree System in China

• 중국건축사 교육제도와 그 역사에 대한 내용

중국건축사 교육제도의 문제점

1. 전문성의 결여
인증제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램에 따라다 보면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가 힘들다. 학교에서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2. 교육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3. 중국에서는 경험이 많은 좋은 선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에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사회의 요구와 건축교육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 4. 건축사 등록제도와 건축 전문 교육제도 사이의 불충분한 연계.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식 시험제도와 유럽식 자격제도 두 가지 방향 중에 현재의 중국은 시험제도가 더 합리적이다.

오후에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제목 : Problem Based Learning
발 표 자 : Bong Wah Sang 교수, the Hong Kong University, 홍콩

시공기술과 재료에 대한 교육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해결 학습법이 유용하다. 건물 유형을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문제를 분류 분석하고 이어서 주제에 관련된 통합적 건설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낸다. 문제 원인의 규명, 문제 개선 작업 그리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디자인에서 대안을 찾는다.

2. 논문제목 : Impact of Social change of Architectural Education
발 표 자 : Ujwala Shirish Chakradeo 교수, L.A.D. College for Woman Nagpur, 인도

1947년 독립 후부터 인도의 교육정

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인도의 건축교육은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RIBA의 제도에 근접하게 발전이 되었고, 1972년 Council of Architecture와 All India Board of Studies in Architecture가 만들어져 건축교육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1986년까지 36개 학교가 세워졌다. 1987년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이 AICTE아래 만들어져 건축을 포함한 기술교육을 관장한다. 현재 102개의 건축학교가 있고 향후 사립학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립학교는 이중등록금 제도가 시행되는데 같은 주에서 지원하거나 장학생은 싼값의 등록금을 내고 일반 학생은 비싼 등록금을 낸다.

- 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3. 논문제목 : Contemporary Roles of Architectural Professionals and Their Education
발 표 자 : Edwin H W CHAN 교수, the Hong Kong University, 홍콩

건축직업인의 현재 문제점

1. 직업정신의 붕괴와 직업위상의 추락
2. 건축에서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새로운 영역의 출현
3. 상업성과 경쟁력의 중요도 증가
4. 직업의 정체성 붕괴.
5. 직업교육에서 타전공과의 연계 교육 필요.

건축사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권고

- 다 전공교육의 강조
- 전공의 특성화
- 타 영역의 탐구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

- 상업적 현실에 대한 적응
- 한 차원 높은 직업의 비전 형성
- 국제 경쟁력 고양
- 프로젝트와 디자인 경영에 대한 영역 확장
- 경영, 공학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추가하여 복합적인 프로젝트 해결 능력을 키움

4. 논문 제목 : Innovative in Architectural Education in UK
발 표 자 : Robert Fowels 교수, Cardiff University, 영국

- 학습, 교육 지원망(The Learning and Teaching Support Network) LTSN 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 이상 4개의 고등교육 기금에 의해 설립되었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영국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이 기초가 되어 24개 주제별 센터망이 학습과 교육에 대한 정보와 주제별전문가를 공급한다.
- Generic Center 에서는 서로 관련된 주제내의 학습과 교육 관심사에 대한 전문가와 정보를 제공한다.
-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York 내의 학습, 교육학회내에 집행부를 둔다.
- 공동 정보 위원회 (Joint Information System Commit) 에서 설립한 기술센터가 고등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위하여 발전시키고 투자한다.

LTSN 의 전략적 목표(요약) :

1. 학습, 교육 실무에 대한 일차적 정보제공
2. 좋은 학습, 교육의 실행과 혁신을 고무하고, 전달하며 증대한다.
3.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네트워크를 유지 발전시킨다.

4. LTSN의 자료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널리 사용되도록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LTSN을 만든다.
5. 학습, 교육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갖는다.
6. 국가정책에 관련된 학습, 교육법의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7. 교육, 학습방법의 국제적인 전망에 대한 공급.

건조환경 교육센터(The Centre for Education in the Built Environment)

CEBE 목표

영국 건조환경 고등교육기관에 학습, 교육 지원망(LTSN)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내외의 교육시장에서 일어나는 도전에 대한 적응을 돕고 이를 위해서 학문의 기본과 품질, 전문성과 중요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킨다.

CEBE의 6가지 건축교육에 대한 주제

1. 학습, 교육 능력, 교육 연구, 현실적인 실습
2. 교과과정 디자인, 발전 그리고 문서화
3. 평가전략
4. 신기술
5. 실무위주 교육, 연구위주 교육, 연구와 교육의 균형 잡기
6. 고등교육 밖에서의 건조환경에 대한 요구.

5. 논문 제목 :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Architectural Qualification
 발표자 : Gordon Holden 교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주

세계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축자격제도와 건축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 단계- 교육 자격제도
 건축교육이 UIA/UNESCO 의 기준에 기본을 두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내에서의 평가는 각국이 자체적인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인증을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교육은 UIA가 주관하여 인증을 한다.

“B” 단계 실무 자격제도
 졸업건축사 - 인증된 학교를 졸업한자
 국내건축사 - 국내의 일만 할 수 있는 건축사로 국내 인증제에 의해 자격 취득한 사람.

국제 건축사 - 국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축사로 국제 인증제에 의해 자격 취득한 사람.

6. 논문 제목 : Diversifying Architectural Practice
 발표자 : Desley Luscombe 교수,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UNSW 대학의 건축교육에 대한 3가지 전략

1. 실무와 이론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통합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건축실무에서 도출되는 문제로 부터 발전된 교육모델을 만든다.
3. 다양한 응용실무에 대한 전략 : 도제식의 반복 교육 보다 응용교육에 의한 자기 스타일 형성 교육.

7. 논문 제목 : Architectural Education for 21st Century
 발표자 : Bernard LIM 교수,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2000년 건축의 해 여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 전공인을 위한 “건축 탐험과 건조환경 프로그램 디자인하기” 행사에 대한 발표다

건축과 교수,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였고 약 60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초등, 중등학생을 위한 디자인 캠프로서 사람 몸으로 빌딩모습 만들기, 홍콩 문화발견하기 등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결과물에 대하여 전시회를 하였고 책자를 만들어 냈다.

목적은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건축과 건조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디자인과 창조적 행위가 건조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Day 2 Friday, 6 July 2001

7월 6일 둘째날에 열린 회의는 홍콩 도심에 강타한 태풍의 경계 발령중에 진행되었다. 홍콩 시내의 모든 건물들이 폐쇄되고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되었지만 건축인들의 회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다만 오전 기조발표 예정이던 말레이시아의 Ken Yeang씨가 늦게 도착하였다. 기조논문 발표 시작 전에는 어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한 Kyran Sze 회의의장의 간단한 Review가 있었다.

오전중에 발표된 기조연설과 논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조연설자 : Ralph Lerner 교수, Princeton University, 미국

Lerner 교수는 프린스턴 건축대학의 교육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총 학생수 90여명(학·석사과정 75명, 박사과정 15명)의 적은 규모이지만 학교의 전통과 충실한 건축교육방향을 강조하였다. 1832년에 설립된 프

린스턴 건축대학의 교육은 역사, 환경 문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예술과 기술습득 교육, 시각예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화/국제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문제에 관한 연구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건축대학은 예술대학, 고고학과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학생들 중에는 외국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Research Project 진행과정에서 각 나라의 사례 및 문화적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내 타 대학들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스페인, 캐나다 등의 외국대학들과 교환학생, 교환교수제도를 채택하고 상호학점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2. 기조연설자 : Peter Steffian, Chairman, Steffian Bradley Associates Inc, 미국

• Peter Steffian씨는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가 입장에서 미래의 건축교육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현재 BAS(Boston Architecture Society)에서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NCARB의 임원이기도 하다.

그는 미래의 건축교육을 위해서는 세계화를 목표로 수준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건축교육제도는 교육과 실무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하며,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뛰어난 디자인 능력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배출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건축사 협약에 의하여 서로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고, 유럽과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제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

준이 필요하며, 각 나라들마다 건축에 대한 법규와 규정들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통합된 규정(교육수준, 시험기준, Internship, Training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기조연설자 : Liu Thai-Ker, Director, RSP 건축사무소, 싱가포르

• Liu Thai-Ker씨도 다른 기조발표자와 같이 실무를 하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다년간 설계 교육강사로 재임하였던 건축가이다. 그는 학교와 설계사무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자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현재 싱가포르의 학교와 건축사무소에서 연구보다는 실무에 치중한 점을 비판하였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들은 서구와 달리 과밀화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어 도시환경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건축교육이 자연과 인간중심이어야 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건축설계시 기능과 미적 치중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고층건축물의 환경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했다.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참고로 싱가포르에 단 하나뿐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건축대학에 대해 소개하였다. 현재 싱가포르 건축대학은 5년제로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수 500명에 정교수 35명과 겸임교수 및 강사들이 있다. 싱가포르 건축대학도 국제적인 추세에 걸맞게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과정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 기조연설자 : Dr.Ken Yeang,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회장, 말레이시아

• 태풍 때문에 오후에 도착한 Ken Yeang씨는 생태건축설계로 유명한 건축가이다. 그는 주로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을 사례로 하여 대형건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생태건축의 목적은 건축이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했으며 이는 건축물에 기계적인 HVAC 시스템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의존하는 건물설계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건축가들은 저층건물을 위한 수평적 조경뿐 아니라 고층건물들을 위한 수직적 조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황폐화 되어가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ecosystem 개념이 제시되었다.

오후에는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논문 발표 직전에는 뉴질랜드의 John Surtherland 씨가 영연방국가들(CAA 회원국)의 건축협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The CAA "Red Book" 2000에 대하여 설명(선전)하였다. "Red Book"은 영연방국가간의 건축사등록, 인증 및 건축사 인정에 대한 규정들이 실린 책이다. 다음은 오후에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이다.

1. 논문제목 : Mind the Gap
발표자 : Clare Newton 교수,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Clare Newton교수는 학교교육과 실무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왔다고 보고 건축교육은 학생들을 실무로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서 교육과 실무사이의 Gap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자인 초기부터 건물의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교육시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학교에서의 건축디자인 교육 및 실무교육 개념을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하였다.

- 1) 실용에 중점을 두고
- 2) 도시적, 건축적 디테일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며
- 3) 실무에 직결되는 교육이 필요하며
- 4) 교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 5) 학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전략이 필요하다.

2. 논문제목 : New Directions In University Education - Architecture as Pioneer
 발 표 자 : Antony Redford 교수, Susan Shannon 교수, Gerry Mullins 교수, Adelaide University, 호주

3인 공동연구논문인 본 논문은 Adelaide 대학의 Case Study로서 2000년도에 호주 교육상을 받았다. Antony Redford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건축교육방식에 대한 내용이였다. 현재 Adelaide 건축 및 조경대학은 전교생 300여명의 비교적 소규모 대학이며 건축교육 뿐만 아니라 환경 Design 또는 문화적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진취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중심의 교육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
- 2) 세계화에 초점을 둔 교육
- 3)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4) 교수들의 연구 Project에 학생들의 적극참여
- 5) 재학생들과 건축실무자들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3. 논문 제목 : Redesigning Architectural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발 표 자 : Grace C. Ramos 교수, The University of Philippines 건축대학, 필리핀

Grace C. Ramos 교수는 필리핀 건축대학의 교육상황과 현재 추진중인 건축교육제도 개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필리핀 건축대학은 현재 5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Ramos교수는 교육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에 적응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환경문제와 도시문제, 문화재 보전등에 대한 건축가들의 시대적 책임을 역설했고, 이에 대비하여 교과과정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수들은 가르치는 것과 연구는 상호 연관되어야 하며, 세계화에 대비하여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역설하였다.

그는 결론으로서 건축교과과정은 사회문화를 대변하고 보다 나은 물리적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고력 높은 건축가들을 길러 내는데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4. 논문제목 : Can a Visually Impaired Person become an Architect?
 발 표 자 : John Wakefield, International Coordinator, Faculty of health & Environment,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영국

John Wakefield 교수는 시각장애자들이 건축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문을 통하여 피력하였다. Bristol 대학에서 몇 년에 걸쳐 1주일간 36시간의 순회식 단기 설계과정을 시각장애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980

년대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강의와 현장방문, 실습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살 주택, 빌딩등을 설계하여 도면과 모형을 함께 제출한다. 그들의 설계는 건물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요소들(안전, 외관등)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Bristol 대학의 1학년 설계에 준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한다. 그는 몇차례에 걸쳐 시도된 설계코스 및 설계 결과물등을 소개하였다.

5. 논문제목 : Professional Exodus? The shifting Geogrophy of Architectural Work
 발 표 자 : Paolo Tombesi교수,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Tombesi 교수는 각국의 설계시장을 조사하였고 이를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사무실임대료, 시간당 임금, 간접비등의 통계에 의한 분석으로 세계 건축설계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지리학적인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설계비 산정방식이 사무실의 역량과 조직여건에 맞추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리적인 요인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임금수준 및 국민소득의 차이와 더불어 새로운 통신수단과 정보교환기술에 의해서 건축설계의 거리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진 상태다. 컴퓨터는 표준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설계작업과 빠른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여 국가간 교대근무로 24시간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 결과로 고임금 국가들은 저임금 국가들에게 작업을 의뢰함으로써 작업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형태는 기술경제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현상이 도래될 수 있고, 고임금 국가들은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건물 디자인의 획일화, 새로운 국제주의 탄생, 그리고 국제성을 띤 디자인이 지역

의 전통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세계화에 수반되는 일련의 현상들이 다방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각 나라들의 설계수준은 상당히 높아가고 있음에도 작업의 분산으로 질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국가간 작업의 분업은 건축설계시장이 겪어야 할 현실이지만 각국의 건축계는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Discussion Forum

기조연설과 논문발표가 끝난 후 2일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의 건축교육은 발전된 서구의 교육과 많은 차이가 있다.
- 2) Teaching 위주의 교육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 3)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선된 교육풍토가 요구되고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4) 건축교육과정이 환경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 5) 몇 개의 소규모 대학들이 오히려 최고 수준의 건축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대학들간의 교류가 절실하다.
- 6) 모든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좋은 교육이 절실한 때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음

회의참관후기

21세기 건축교육에 중점을 둔 이번 국제회의는 교수들과 건축가들의 열띤 토론 마당이였다. 설계시장 개방으로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해 질수 있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각국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이번 회의는 건축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순수하고 솔직하게 제시되었다. 회의중 각국의 참석자들은 자국의 건축교육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건축교육제도가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견해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WTO의 회원국인 한국도 건축교육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차 건축사 상호 인증제도가 가동될 경우 국내설계시장개방과 건축사 활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제도 및 건축교육제도의 선진화·국제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새로운 제도는 건축교육단계부터 국제수준의 교육제도에 걸맞은 건축 전문가 교육(Professional Education) 시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학제선택으로 학생들이 실무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우리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Tour to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7월 6일 금요일에 모든 회의일정을 마쳤으며 7월 7일 토요일에는 홍콩에 있는 대학들의 견학이 있었다. 오전에는 the University of Hong Kong을 방문하였으며 오후에는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을 방문하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간혹 잔비가 내리는 찜푸린 날씨에 방문단은 산중턱에 위치한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ampus에 도착하였다. Campus에서 내려다 본 도시 중심가와 해안은 각각 각색의 건물들과 많은 상선들이 어우러져 태풍직후의 날씨와 함께 신비로움을

더해 주었다. Campus에는 홍콩대학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고건물들이 몇동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좁고 가파른 Campus는 고층화된 건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건축대학 Studio에서 학교의 교과과정과 타학교와의 교류등에 대하여 재직교수들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The University of Hong Kong은 대학과정이 3년이며 졸업후에 학교를 떠나 1년간 실습기간을 거친 후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2년간 대학원 과정을 거친다.

Studio에는 학년별 과제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CAD를 사용한 Presentation 이 대부분이었으나 저학년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손으로 Drawing하는 과제도 있었다. 고학년들의 3D Presentation은 수준급이었으며 크고 작은 Scale의 Study 모형들과 주요부분에 대한 Detail Drawing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홍콩대는 공식언어를 영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우수한 교수진 확보가 유리하고 아시아권내의 외국학생들이 다수 수학하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圖

(글 / 이인호, 김홍일)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ampus에서 방문단 기념촬영